

# 재외동포의



2012 12월호



**특집 : 4~9** 차세대 육성과 소통에 역량 집중  
2012 재외동포재단, 한민족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다





## 조선의 마음을 빛다 백자

단순함과 소박함의 미로 대표되는 백자를 통해 청렴함과 순백함을 지향했던 조선 사대부의 세계관을 발견하고, 비대칭과 익살스러운 표현이 담긴 백자에서는 조상들의 해학과 여유의 멋을 느낄 수 있다.

고려 하면 청자이고 조선 하면 백자이듯이 백자는 조선의 그릇을 상징하고 있다. 청자가 워낙 아름답다보니 백자는 그에 못하다는 인식도 있지만 기술적으로는 백자가 청자보다 앞선 그릇이다.

백자는 크게 아무 문양도 없는 순백자, 코발트로 파랗게 문양을 넣은 청화백자, 표면에 상감 기법을 쓴 상감백자, 빨간 진사를 써서 표면 그림이 붉게 나오는 진사백자, 철분 안료를 써서 다갈색 문양이 나오는 철회백자 등으로 나누고 있다.

조선시대 성리학의 영향을 받아서 유물중에는 화려한 것이 그리 많지 않다. 백자는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질박하고 검소함을 지향하는 사대부의 정신을 표현하고 있다.





4



14

## 목차 2012 12월호

- 2 **한국의 얼**                    조선의 마음을 빛다 백자
- 3 **목차**
- 4 **특집**                        차세대 육성과 소통에 역량 집중  
2012 재외동포재단, 한민족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다
- 10 **기획**                      온라인 통해 지구촌 곳곳서 심화 교육  
재외 한글학교 교사 2012년 2차 사이버연수
- 12 **한민족공감**           李大통령, 아세안·UAE와 ‘경제적 거리’ 좁혀 외
- 14 **현장의 목소리**        “우리말로 응변 겨루며 모국 사랑 다져요”  
2012 유럽한인차세대응변대회 체크서 개최
- 16 **한글학교 탐방**        미국 ‘다솜 한국학교’ 다양한 인재 키운다
- 17 **글로벌 코리안**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정치인 다수 당선  
어바인 시장 최석호 등 “한인 위상 강화 힘쓰겠다”
- 18 **OKF뉴스**                독일·멕시코 한인 행사 격려 및 현황 파악 외
- 20 **지구촌 통신원**        ‘코리아 페스티벌 싱가포르 2012’  
클래식 등 한류의 확장 보여줬다
- 22 **동포 이민사**            열악한 환경 헤치며 성장해 온 ‘멕시코 한인’
- 23 **동포문학**                하늘을 나는 나무  
김성만(중국) 2012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 24 **나의 살던 고향**        눈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섬 남해
- 26 **재단공지 및 독자후기**



### 표지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 한 해 동안 재외동포들의 힘을 결집해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고국과 상생발전을 돕고, 차세대들에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려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교육과 차세대 육성에 앞장섰다.



발행인: 김경근  
 등록번호: 문화-라 08249  
 발행처: 재외동포재단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558번지 외교센터 6층  
 전화 3415-0100 팩스 3415-0117  
 www.korean.net / webzine.korean.net  
 기획·편집: 재외동포재단 홍보문화팀 pr@okf.or.kr  
 제작: 연합뉴스  
 인쇄: 헤럴드미디어

재외동포재단(Overseas Koreans Foundation)은 대한민국 외교통상부 산하 정부출연기관으로 전세계 720만 재외동포의 권익신장과 거주국에서의 주류사회 진출을 지원하는 다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국제교류기금을 지원받아 발행하고 있습니다.
- 본지는 webzine.korean.net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웹진의 정기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www.korean.net 회원으로 가입하시면 매월 발간되는 '재외동포의 창' 웹진을 받아보실수 있습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법조·언론·사회 부문 등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리더 106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대회 기간동안 한인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교류를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했다.

# 차세대 육성과 소통에 역량 집중

## 2012 재외동포재단, 한민족 자긍심 고취에 앞장서다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 한 해 동안 재외동포들의 힘을 결집해 ‘한민족 경제공동체’ 형성으로 고국과 상생발전을 돕고, 차세대들에 한국어와 한국전통문화를 알려 정체성을 확립하는 등 교육과 차세대 육성에 앞장섰다. 또한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을 완료해 ‘코리아넷’을 동포사회의 소통의 장으로 만드는 데 힘썼다.

재외동포재단은 2012년에 다양한 동포 사업을 진행하면서 ‘차세대의 육성을 위한 한글학교 지원 확대와 모국과 동포 간 소통’에 중점을 두었다. 또한 한상대회 및 한인회장 대회 등을 통해서 모국과 동포 간 동반 성장을 위한 ‘상생 체제’를 굳건히 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타국에서 온갖 역경을 극복, 성공적으로 정착해 한민족의 위상을 높이면서 모국 발전에도 헌신

적으로 기여한 720만 재외동포에게 한민족으로서의 자긍심을 갖도록 실질적인 지원을 하는데 집중했다”며 “앞으로도 동포재단은 물론 모국과 재외동포가 소통하는데 역량을 쏟겠다”고 밝혔다.

재외동포재단의 2012년 사업의 중심에는 ‘재외동포 글로벌 인재육성’과 ‘민족교육 강화’가 놓여있었다.

김 이사장은 “재외동포 차세대들이 글로벌 시대를 선도하며 주도적인 삶을 살아나가도록 국제적인 감각과 소통능력이 있는 인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8일 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전 세계에서 참가한 202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재로 키워내야 하며 전문적 식견과 기능을 가진 지도적 인력으로 성장시켜 나가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동포재단이 차세대 육성 의지가 강하다는 것을 강조했다.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전 세계의 정치·경제·문화·법조·언론·사회 부문 등에서 활약 중인 재외동포 차세대리더들을 초청해 한인사회의 미래를 논의하고 네트워크 구축을 추진하는 행사다.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린 행사에는 미국, 일본, 중국, 독일, 영국, 파라과이 등 22개국에서 온 차세대 동포 등 106명이 참석했다.

### '글로벌 코리안 세계 미래를 담다' 주제로

'글로벌 코리안 세계 미래를 담다'라는 주제로 열린 '2012 세계한인차세대대회'는 차세대포럼 등을 통해 지역별 차세대 현안,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에 집중 논의했으며 '세계한인의 날 기념식'과 한인의 날 기념 KBS 열린음악회 공연을 관람하고, 총리 공관을 방문, 경복궁 관람, 4대강 자전거 투어 등 모국을 폭넓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가자들은 대회 기간 포럼을 통해 각 지역 현안, 재외동포 사회 발전을 위한 차세대 역할, 차세대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차세대의 정체성 확립과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재외동포재단에서 매년 실시하는 '세계한인 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가 해를 거듭할수록 주목을 받으며 한민족의 미래를 이끌 '차세대 네트워크'로 성장했다. 올해 대회는 1차 청소년, 2차 대학생으로 나뉘어 1천여 명의 학생들이 모국을 체험하며 정체성을 확인하는 교류의 시간을 가졌다.

7월 10일부터 16일까지 일주일 간 열린 1차 연수에는 세계 53개국에서 한인 청소년(중·고등학생) 400여 명이 참가했다. 이번 연수에는 국내외 교류 및 네트워킹을 위해 국내 청소년도·대학생 290여 명도 함께 참여했다.

7월 24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동포 대학생 268명이 참가하는 2차 연수가 서울과 지방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이한 차세대 모국연수 사업은 전 세계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이 모국의 사회·문화·역사를 체험함으로써 한민족으로서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국·내외 한민족 청소년·대학생의 민족 유대감 증진이 목적이다.

김 이사장은 "전 세계적으로 한류와 한국의 성장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재외동포 청소년·대학생들이 모국의 진정한 모습을 체험할 수 있는 매우 좋은 기회가 됐을 것"이라며 "모국연수 사업을 통해 참가자들이 정체성을 함양하고, 서로 간의 교류를 통해 글로벌 차세대 리더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재외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8일간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경희대 국제캠퍼스에서 '2012년 재외한글학교 교사 초청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에는 유럽, 미주, 아시아, 독립국가연합(CIS) 등 52개국에서 총 202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가했다.

연수에 참가한 교사들은 한국어 교육 연수, 학교 경영과 리더십, 우수 강의 시연, 운영사례 발표 등을 통해 교육 역량을 강화하고 교수법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사들은 여수 해양엑스포 등 전라도 일대의 역사 문화를 체험하는 시간을 통해 모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시간도 가졌다.

한편, 재단은 7월 3일부터 8월 6일까지 4주간 CIS지역 한글학교 교사를 초청해 한국어 집중연수를 실시했다. 이어서 7월 16일부터 30일까지는 중국지역 조선족학교 조선어교원을 초청해 한글 집중연수 및 모국 문화체험을 실시했다. 참가한 교사들은 "한국어 교수법 심화교육과 모국문화 체험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시킨 것이 가장 큰 보람"이라고 밝혔다.



경기도 여주군 해바라기 마을로 농촌체험을 온 청소년 대학생 모국연수 참가자들이 인절미 만들기 떡 메질 체험을 하고 있다.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하나된 세계한인, 세계 속의 일류 한인'이란 슬로건 아래 전 세계 73개국에서 400여 명의 한인회장이 참석했다.

## 세계한인회장대회, 성공사례 공유로 동반성장 모색

**전** 세계 73개국의 한인회 회장과 임원 400여 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2012 세계한인회장대회가 6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쉐라톤 워커히호텔에서 열렸다.

재외동포재단이 13회째 주최하는 이번 대회는 '하나된 세계 한인, 세계 속의 일류 한인'이란 주제로 열렸으며 한인회 간 네트워크 강화 및 한국어교육 활성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올해는 지방 행사를 없애 한인회 간 교류의 시간을 대폭 늘리고, 강연과 토론 프로그램을 확대해 대회의 집중도를 높였다.

특히 12월 대선을 앞두고 주요 정당 관계자를 초청해 각 정당의 재외동포 정책을 듣고 재외선거인 등록과 투표 절차의 개선점을 논의하는 포럼이 열려 국내외의 주목을 받았다.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민족 네트워크 기반조성을 목적으로 2000년부터 매년 개최돼 왔으며, 이번 대회 공동의장은 유진철 미주한인회총연합회 회장과 장홍근 중남미한인회총연합회 회장이 맡았다.

동포사회의 소통과 화합에 앞장서온 세계한인회장대회는 한인회 간의 교류와 성공사례 공유를 통해 '글로벌코리아' 구현에 한인 네트워크가 중심에 있다는 것을 국내외에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세계한인회장대회에는 전 세계 한인회를 대표하는 연합회

가 모두 한자리에 모였다. 유럽을 비롯해 그동안 갈등이 있었던 지역이 모두 화합을 해 한목소리로 대회에 참석했고 어느 때보다 화합과 소통을 강조했다. 모국과 동포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동포사회가 한마음 한뜻으로 모여 한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점에 일치를 이룬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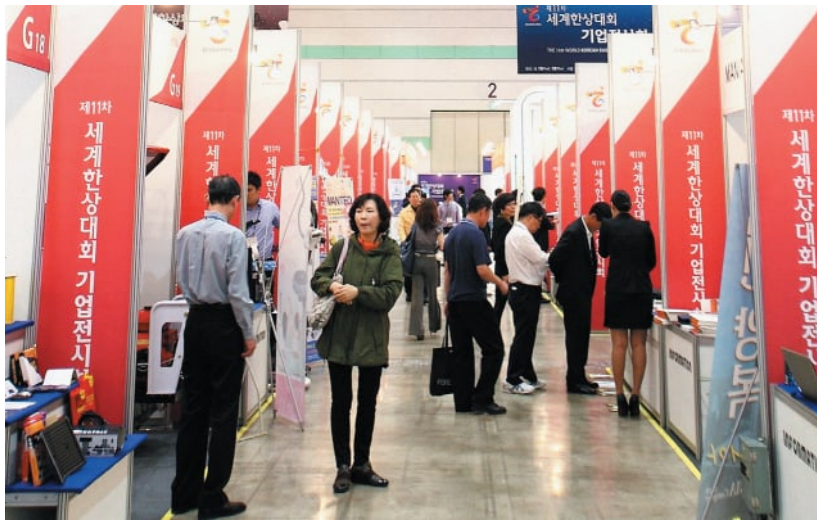
지역별 현안토론에서 한인회장들은 '한인회의 한국어 교육 기여 방안'을 주제로 각 지역별 한인 차세대 교육과 육성에 대해 논의했다. 토론은 유럽, 아중동, 북미, 중남미, 일본, 러시아·CIS, 중국, 아시아, 대양주 등 9개 지역으로 나눠 진행했다.

한인회장들은 재외선거 관련법의 제도적 보완을 촉구하고, 공정한 선거를 위해 엄정 중립을 지킬 것을 결의했다.

28일 오전 전체회의에서 한인회장들은 한반도의 평화 통일 기반 조성, 재외선거 관련법의 제도적 보완 촉구, 모국과 거주국의 공동번영과 우호친선 확대, 재외동포 교류센터의 조속한 건립 촉구, 글로벌 코리아 네트워크 구축 사업에의 적극 동참 등 총 6개 항의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29일 세계한인회장단을 청와대로 초청해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전 세계 주요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맺어 경제 영토가 넓어진 데 대해 자긍심을 나타내고, 재외동포들이 '민간 외교' 활동을 통해 국력을 더욱 신장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동포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6일부터 서울 코엑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멕시코 한인 후손 33명을 초청해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는 한인 후손들.

## 세계한상대회, 글로벌코리아 견인한 성장동력으로

**한**민족 최고의 비즈니스 축제, '제11차 세계한상대회'가 '글로벌 코리아의 힘, 한상 네트워크'라는 슬로건으로 세계 47개국에서 활동하는 내외동포 경제인 3천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성황리에 열렸다.

재외동포재단과 서울특별시가 공동 주관한 이번 한상대회는 세계 곳곳에서 활약하는 재외동포 경제인과 국내 기업인이 한자리에 모여 열띤 교류와 수출 상담으로 대회를 뜨겁게 달궜다.

1억5천700만 달러 이상의 상담 실적을 올리며 세계 경제위기 속에서 글로벌 코리아를 견인하는 성장 동력임을 알렸다. 11주년을 맞이해 열린 이번 대회에서는 영비즈니스리더의 가능성과 한상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통한 글로벌 비즈니스의 청사진을 제시했고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의 든든한 동반자라는 평가를 받았다.

대회 기간에는 350개 국내 중소기업이 총 391개 부스를 설치해 한상들과 만났다. 한상과 국내 기업인들이 1대 1 미팅과 유통 바이어 초청 상담회 등을 통해 실질적인 비즈니스 성과 창출에 나섰다.

이밖에도 리딩CEO포럼과 영비즈니스리더포럼 등도 열렸다. 어운대 KB금융지주 회장은 리딩CEO포럼에서 금융산업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17일에는 '산업분야별 비즈니스네트워킹세미나', '한상 초청

대한민국 프랜차이즈 IR쇼', '멘토링세션', '일대일 비즈니스미팅' 등 비즈니스 프로그램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대회의 분위기가 한껏 고조됐다.

동포재단은 45세 미만 젊은 한상들이 모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사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영비즈니스리더포럼을 한상대회 기간 중에 열었다.

올해로 11회를 맞는 이번 포럼에는 세계 각국에서 120여 명이 모였다. 역대 최대 참가로 그동안 차세대 육성에 꾸준히 힘을 쏟아온 결과다.

젊은 한상들은 네트워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영비즈니스리더 네트워크(YBLN)를 만들었다. 이번 대회에서 신임 YBLN 회장으로 선출된 고해정 케이프랑그룹 대표(44)는 "젊은 한상 네트워크는 단순한 친목 모임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기회"라고 말했다.

올해는 알렉산드르 텐(34) 씨를 비롯해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 독립국가연합(CIS) 지역에서 활동하는 한상 10명이 처음으로 참가했다.

동포재단은 이어령 전 문화부 장관과 한상 대표인 박종범 오스트리아 영산그룹 회장, '기부천사'로 잘 알려진 가수 선과 함께 한류의 확산과 한상의 역할 등에 관해 이야기를 나누는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 코리안넷, 전세계 한인사회 네트워크 구축 본격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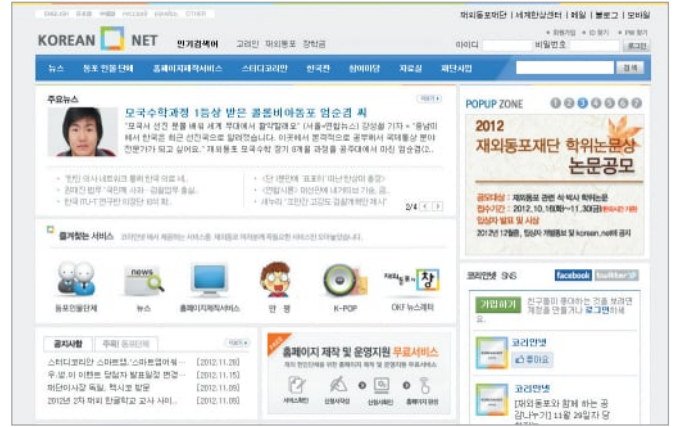
국가브랜드 향상을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동포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 구축 사업을 3단계에 걸쳐서 본격화했다.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의 DB를 구축했다. 나아가서 내외부 시스템의 통합연계를 통해 단일창구인 코리안넷을 구현하는 고도화 단계를 거쳐 다양한 정보를 서비스했다. 2012년에는 이를 안정화 시켜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출하고, 다양한 쌍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올해 코리안넷은 눈에 띄게 확 달라졌다. 우선 외형적으로 메뉴 구성과 디자인 개편 등을 통해 누구나 사이트를 방문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을 업그레이드시켰다.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 정보를 로그인만 하면 누구나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다. 재단은 코리안넷에 담겨있는 각종 정보들이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누구에게나 서비스하겠다는 전략이다.

또한 정보를 한인회, 한글학교 등 전문 분야별로 분류하여 게시함으로써 유관 단체 동포들 간 정보와 지식의 공유를 통한 유대 강화와 상호발전을 위한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동포재단은 ‘글로벌 코리안 네트워크(GKN)’ 구축을 위해 우선 재외동포 인물과 단체의 DB를 구축했다. 나아가서는 내외부 시스템을 통합연계해 다양한 쌍방향 정보를 바탕으로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도록 질 높은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는 기반을 구축했다.

한인단체 홈페이지 무상구축은 물론 지원과 표준화를 위한 글로벌 도메인 서비스 분야도 홈페이지 제작도구의 기능 고도화와 단체 템플릿 제공, 홈페이지 제작 온라인 지원 서비스 등을 통해 단체 홈페이지의 고급화와 편의성을 제고한 점도 눈여겨볼 만한 것 중의 하나다. 이밖에도 통합검색, 웹 메일 기능, 단문서비스(SMS) 등이 한층 강화됐다.

# 전국 16개 고교 찾아가 ‘재외동포 이해교육’ 실시

동포재단은 8월 22일부터 12월 7일까지 서울을 비롯해 울산·경기·경북·전남·전북·제주 지역의 16개 고교와 함께 ‘찾아가는 재외동포 이해교육’을 실시했다.

재단 직원들이 강사로 직접 참여하는 이번 사업은 미래의 한국 사회를 이끌어 갈 고등학생들에게 재외동포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관심을 갖도록 하고, 720만 재외동포사회와 긴밀하게 유대관계를 맺을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찾고자 하는 데 주된 목적이 있다.

재외동포재단 설립 이래 처음으로 실시한 ‘고교생 대상 현장 방문 교육’에는 8월 동대부속여고(서울) 포천고(경기) 전주여고(전

북), 9월 서라벌고(서울) 광양고(전남) 목포여고(전남) 풍문여고(서울), 10월 서해고(경기) 울산중앙여고(울산) 대부고(경기) 명덕외고(서울) 대정여고(제주), 11월 대영고(경북) 신일고(서울), 12월 저동고(경기) 경동고(서울) 등이 참여했고, 교육인원은 3천여 명을 넘어섰다.

강연의 주된 내용은 재외동포의 현황 및 동포사회의 과거·현재·미래의 변화 추이와 동포재단의 사업에 대한 소개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이 전 세계 재외동포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향후 재외동포사회와 학교 현장 간의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재외동포학생 장학사업 확대... OKF 봉사단 결성도

동포재단은 동포초청 장학생 사업을 확대했다. 아울러 국내 학생과 장학생으로 구성된 OKF봉사단을 처음으로 결성해 운용했다. 재단이 차세대 육성에 주력하는 것은 점차 현지화 되가는 차세대를 끌어안아야 동포사회의 역량도 커지고 전망도 밝아진다는 부인할 수 없는 당면과제이기 때문이다.

우선 장학사업 예산이 대폭 증가했다. 재단은 매년 국내 대학 및 대학원 수학을 희망하는 재외동포 우수학생을 선발해 등록금 면제 및 생활비를 지원해왔다. 올해도 전 세계에서 80명의 학생을 선발했다.

국내 초청 경제사정이 어려운 중국과 CIS 지역 동포 학생들에게는 현지 장학금 지원도 펼쳐오고 있다. 모국 초청 장학사업은 유학을 통해 거주국에서 주류사회 진출을 돕는 한편 한민족의 정체성을 심어주기 위해서다.

OKF 자원봉사단은 1년간 국제교류행사(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 등)의 스태프로 참여해 모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청소년들을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1기로 선발된 33명의 자원봉사단은 모국 연수 및 유학 등 다양한 목적으로 국내에 입국하는 재외동포 청소년과 대학생의 학교 생활 적응을 비롯해 모국어 학습과 한국 문화에 대한 소개 등을



OKF 자원봉사단은 1기 33명은 2012년 한 해 동안 국제교류행사(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모국연수 등)의 스태프로 참여해 모국을 방문한 재외동포 차세대를 위한 봉사활동을 펼쳤다.

도왔다. 특히, 여름에 개최한 ‘세계한인청소년대학생 모국연수’에서 그룹 리더로 활약하며 연수를 도왔다.

대학생 자원봉사단은 국제 교류 분야, 대학 캠퍼스 활동, e-OKF 활동 등 3가지 분야에서 활약했다. 재단은 자원봉사단 활동이 차세대 모국연수뿐만 아니라 동포 장학생의 모국 수학을 돕는 등 여러 방면에서 기대 이상의 활약을 펼쳤다고 평가하며 2013년에도 2기 봉사단을 구성해 운용할 계획이다.

## 멕시코 한인후손 모국체험 “조국이 자랑스러워요”

동포재단은 8월 7일부터 1주일 동안 멕시코 한인 후손 33명을 초청해 모국의 문화와 역사를 체험하는 연수를 실시했다.

15~30세의 한인 3·4세로 구성된 참가자들은 방한 기간에 서울, 경북 경주, 울산 등지를 돌며 고국의 발전상을 견학하고 선조의 이민사를 배웠다. 국내 대학생들과 함께 홈스테이를 하며 모국의 푸근한 정을 느끼는 기회도 마련됐다.

동포재단은 짧은 기간이지만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체험하고, 자긍심을 갖고 더욱 더 의욕적으로 미래를 개척하는데 도움이 되는 연수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재단은 멕시코 한인 후손들이 현지 사회에서 훌륭한 인재로 정

착하는 데 보탬이 되도록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112명을 국내에 초청해 직업연수를 실시했다. 올해부터는 많은 동포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 모국체험 연수로 전환했다.

참가자들은 자신들의 뿌리인 이민사에 대한 강연도 듣고 전통 문화를 체험했다. 모국 산업시찰에 나섰다. 울산으로 이동한 참가자들은 한국 근대화의 주역이라고 할 수 있는 포스코를 견학했다. 용광로에서 쏟아진 쇳물이 제련을 통해 강판으로 만들어지는 과정을 뜨거운 열기도 있고 열심히 살펴보았다. 후손들은 한결같이 “규모가 엄청나게 크다. 모국의 기업이 세계 일류에 있다는 것을 실감했다”고 소감을 말했다. [창]

# 온라인 통해 지구촌 곳곳서 심화 교육

## 재외 한글학교 교사 2012년 2차 사이버연수

재외동포재단은 한글학교 교사의 교수 능력 제고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연수를 매년 실시해오고 있다. 사이버연수는 한글학교 교사가 모국 초청연수에 참여하기 어려운 사정을 감안해 거주국에서 공간과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온라인 교육이다. 사이버 연수는 해마다 참여자가 늘고 있는 가운데 교사들로부터 “교육에 실제로 도움이 된다”는 호평을 받고 있다.

재외동포들이 현지에서 쉽게 한국어교수법을 배울 수 있도록 도입된 ‘재외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 2012년 2차 연수 과정이 서울대 평생 교육원에서 지난 11월 19일부터 3개월 과정으로 시작됐다.

이번 2차 연수에는 30여 개국에서 75명의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했다. 재외동포재단은 해외 거주 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인터넷을 활용한 교사연수 기회 제공과 한글학교 교사 자질 함양 및 개인 역량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실시하고 있다.

동포재단에서는 금년도 한글학교 교사 사이버연수과정을 상·하반기 두 차례에 걸쳐 서울디지털문화예술대학과 서울대학교 평생교육원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2013년 연수과정은 내년 4월경 재외공관을 통해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

연수에 참여한 교사들은 자신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서 컴퓨터에 접속해서 수강신청을 하고 온라인 강좌를 수강하게 된다. 지정된 과제를 제출해야 되며 온라인으로 시험도 보게 된다.

서울대 평생교육원 관계자는 “온라인 교육의 장점은 24시간 때와 장소에 구분 없이 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며 “세계 곳곳에서 거주하는 한글학교 교사들은 본인의 사정과 시차 등에 제한 없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사이버연수는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이 재외 한국 공관에 연수신청서를 내면 재외동포재단과 학교 측이 이를 취합해 연수생을 선발하고, 선발된 연수생들은 학교에 개별 등록한 뒤 연수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된다.

올해 1차 사이버 연수에 참여한 한글교사들은 “사이버 연수과정은 재외동포를 위한 한글교육에 큰 도움이 됐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돼 전 세계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을 위한 교육의 장으로 자리매김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김경근 재단이사장은 “재단은 자원봉사자가 대다수인 재외한글학교 교사들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다양한 연수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더 많은 교사들이 연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사 사이버 연수사업을 확대 시행할 것”이라며 “서울대 평생교육원과 협력해 시행하게 될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에 한글학교 교사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이버연수의 장점은 모든 수업이 온라인을 통해서 진행되기 때문에 한글학교 교사들로부터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과정은 한국어학영역, 일반언어학영역, 외국어로서의 한국어교육론영역, 한국문화영역, 한국어교육실습영역 등.

사이버 수업의 진행을 맡고 있는 서울대 평생교육원은 “재외동포 한국어교육을 통해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이 연수가 진행되기 전까지는 국내로 교사들을 직접 초청해 강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했지만 예산이 적지않게 들었고, 인원도 제한적이어서 사이버 교육에 대한 요구가 빗발쳤다.

이에 동포재단은 디지털서울문화예술대학교와 서울대 평생교육원 등과 업무 협정을 맺고 위탁 교육을 통해 한글학교 교사들이 언제 어디서든 한국어 교육을 심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사이버 연수에 처음 참여했던 독일 베를린 슈투트가르트 한글학교 윤선옥 교사는 “사이버 교사 연수를 통해 배운 모든 것을 학생들에게 다 전수해 주고 있다”며 유익한 연수였다고 소개했다.

재단은 지난해 사이버연수 수료생 142명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한글학교 교사들을 국내로 초청해 강의실에서 대면 교육을 했지만 예산문제 등으로 인원이 제한적이어서 더 많은 교사들이 심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사이버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문조사를 무기명으로 실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사이버 연수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93%(아주 높다 85명, 높다 47명)로 높게 나타났고, 129명의 교사가 ‘실제 교육현장에서 많은 도움이 됐다’고 응답했다. 이에 따라 ‘연수 과정을 주위 선생님에게 추천하겠다’고 132명의 교사가 답했다.

재단은 교사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해 올해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연수를 제공했다. 연수 인원을 2배로 늘리고, 횟수도 2회로 늘려 많은 교사에게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컴퓨터 사용에 익숙지 않은 교사들을 위해 ‘강의 환경 점검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다.

김 이사장은 “한글은 민족혼이며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소통 도구이자 민족의 미래를 받쳐주는 것은 물론 민족을 영속하게 하는 영원한 생명체”라고 강조하며 한글 교육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사이버 연수 과정은 국어를 모어(母語)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과정으로 문화체육관광부 국어기본법 시행령에 기초한 온라인 한국어교원 양성과정으로 한국어교원 3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사이버 연수를 마친 후 자격증을 취득하는 한글학교 교사가 늘어나고 있는 점에서 보듯이 사이버연수가 교사 심화교육의 중요 과정으로 자리 잡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0년 1월 현재 110개국 143개 공관에 소속된 한글학교는 모두 2천111개이고, 1만4천870명의 교사가 12만8천46명의 학생을 가르치고 있다.

이 학교는 한민족 정체성 확립을 위해 한국국적을 소지한 영주권자와 시민권자 자녀, 입양인, 국제결혼여성 자녀에게 한국어와 한국사, 한국문화를 교육하고 있다. **창**

# 李대통령, 아세안·UAE와 ‘경제적 거리’ 좁혀

## FTA 통해 ‘경제 네트워크’ 확장 도모

이명박 대통령은 아세안(ASEAN·동남아국가연합) 정상회의 참석과 아랍에미리트연합(UAE) 순방에서 우리나라의 ‘경제 영토’를 확고히 다지는 데 주력했다.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제구조와 지난 2008년 이후 두 차례의 경제 위기가 미국과 유럽이 진원지였다는 점에서 신흥 성장의 핵심 지역인 ASEAN과 UAE를 확실히 우리 편으로 편입시킬 필요성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ASEAN은 우리나라와 무역 규모에서 중국, 투자 액수에서는 유럽연합(EU)에 이은 제2위의 교역·투자 대상 지역이다. UAE도 사우디아라비아를 제외하고는 중동 지역에서 우리나라와 교역량이 가장 많은 나라다.

이 대통령이 임기 마지막 순방지로 이곳을 택한 것도 이 같은 경제전략과 무관치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11월 19~20일 캄보디아에서 열린 아세안, 아세안+3(한·중·일), 동아시아정상회의(EAS)를 계기로 다자가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의 첫 단추를 채움으로써 무역 다변화 전략에 한발 다가섰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 가운데 ‘역내 포괄적 경제동반자협정(RCEP)’ 협상 개시를 선언하고, 한·중·일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내년 초 착수하기로 한 것이 우선 눈에 띈다.

한·미 FTA, 한·EU FTA에 이어 또 다른 거대한 경제지대로의 진출을 촉진할 수 있는 고리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기대했다.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은 21일 “아세안 지역은 앞으로 세계 경제 위기를 극복할 엔진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는 곳”이라면서 “이번 회담 참석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경제적 거리가 한층 가까워졌다”고 말했다.

FTA와 비슷한 RCEP에 참여하는 나라는 아세안 10개국에 한국, 중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인도 등을 더해 모두 16개국으로,



11월 19일 오후 캄보디아 프놈펜 피스 팰리스에서 열린 아세안(ASEAN)+3 정상회의에서 회의 시작에 앞서 이명박 대통령 등 아세안+3 정상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 친나왓 태국 총리, 응 웬 띨중 베트남 총리, 이 대통령, 원자바오 중국 총리, 훈 쉐 캄보디아 총리, 노다 일본 총리.



아랍에미리트연합(UAE)을 방문한 이명박 대통령이 11월 21일 바라카의 원전건설 현장에서 열린 원자력발전소 1·2호기 착공식에서 모하메드 UAE왕세자와 함께 콘크리트 타설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 흔들어 인사하고 있다.

규모 면에서 EU를 능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중·일 FTA 역시 성사되면 국내총생산(GDP) 합계 14조 달러에 달하는 거대 시장이 생기는 것이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이미 체결 준비에 들어간 한·중 FTA에 더해 한·중·일 FTA, RCEP까지 3개의 자유무역협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경제 네트워크’ 확장을 꾀하는 것이다.

다만, 서로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나라를 하나의 FTA로 묶기까지 진통이 예상되고, 농업과 같은 취약 산업에 대한 대책을 마련



해야 하는 어려움도 함께 해결해야 하는 과제가 가로놓여 있다.

UAE에서는 '원전 세일즈'와 원유 공급처 확보에 방점을 찍었다. 비록 UAE가 풍부한 원유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미래 에너지원 확보를 위해 원전 건설을 전략적으로 추진 중이어서 '전략적 동반자 관계'인 우리나라와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헬기 편으로 UAE의 실권자인 모하메드 아부다비 왕세자와 우리나라가 수주한 원전 1·2호기 착공식에 직접 참석했으며, 기존에 계약한 400억 달러 규모를 넘어 추가 계약도 가능성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UAE와 유전 개발 공동 사업도 본궤도에 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내년 생산 중인 유전 광구에서 10억 배럴 규모의 계약을 추진키로 했으며, 3개의 미개발 광구에서도 평가정 시추를 검토하는 등 본격 개발 착수가 임박했다.

이러한 상황과 맞물려 이 대통령의 이번 방문도 지난 2009년 이래 네 번째이다. 그만큼 공을 들이고 있다는 방증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임기 중 모두 49차례에 걸쳐 84개국을 방문해 역대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해외 출장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비행거리로 환산하면 총 75만 8천47km로, 지구를 19바퀴가량 돈 셈이다. 특히 비행기 내에서 40일 9시간 15분을 보냈다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미국은 9회로 방문 횟수가 가장 많았으며, 이어 일본·중국(7회), 러시아·인도네시아·UAE(4회), 카자흐스탄·태국(3회) 등이 뒤를 이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은 55개국(27차례), 김대중 전 대통령 35개국(24차례), 김영삼 전 대통령 33개국(14차례)을 순방했다.

## 올해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 열렸다

올해 1천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11월 21일 입국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가 열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연말까지 100만 여명이 더 들어올 것으로 보고 올해 외래 관광객 수가 1천13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를 기념해 관광업계 유공자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 하며 격려했다.

이 대통령은 "여러분의 노력이 모여 짧은 시간에 외래 관광객 1천만 명 유치라는 성과를 이뤄냈다"면서 "관광객 유치 숫자 못지 않게 높아진 국력에 맞는 질적 관광을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박정하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이제 대한민국 하면 '떠오르는 나라', '꼭 가보고 싶은 나라'가 됐다"면서 "이에 걸맞게 관광업계도 큰 변신을 해야 할 때가 왔다. 관광은 중요한 산업이자 문화다"라고 강조했다.

외래 관광객이 증가하자 관광산업 지표가 눈에 띄게 개선됐다. 문화부는 관광수지가 2007년 109억 달러 적자에서 올해 12억 달러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보여 적자폭이 89%가량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관광수입은 2007년 61억 달러에서 올해 143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의료관광객은 15만 명, 크루즈관광객은 25만 명이 입국할 것으로 보여 5년 전보다 각각 838%, 590% 각각 증가



올해 1천만 번째 외국인 관광객이 11월 21일 입국함으로써 외국인 관광객 1천만 시대가 열렸다. 21일 오후 중국 상하이에서 KE894편을 타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중국인 관광객들이 입국장으로 향하고 있다.

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제회의 개최 건수는 2007년 268건으로 세계 15위였으나 지난해 469건을 개최, 세계 6위에 이름을 올렸다.

문화부는 관광객이 증가한 이유로 G20과 핵안보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유치, 한류열풍으로 인한 국격 제고, 적극적인 해외 마케팅 등을 꼽았다.

한편 문화부와 관광공사는 질적 성장에도 노력을 기울여 앞으로 대규모 국제회의 유치와 고부가가치 관광상품 개발에 주력할 방침이다. **▶**



# “우리말로 응변 겨루며 모국 사랑 다져요”

## 2012 유럽한인차세대응변대회 체코서 개최

**체**코 프라하에서 유럽의 한인 학생들이 모여 우리말 응변 솜씨를 겨뤘다. 11월 10일(현지시간) 클라리온 호텔에서 열린 ‘제2회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에서 중·고등부에 출전한 독일의 김영일(16·여) 양이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김 양은 어려운 이민 생활 속에서 자식들을 위해 분발하고 애쓰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표현, 청중의 눈시울을 적셔 외교통상부 장관 표창과 장학금 1천500유로(225만 원)를 받았다.

스페인의 고진석(17·중고등부), 아일랜드의 이한아(9·초등부), 영국의 힙스 유안(12·다문화부)은 부문별 최우수상에 뽑혔다.

### 차세대에 한글 자부심 심는다

재외동포재단(이사장 김경근)의 후원을 받아 유럽한인총연합회(회장 박종범)가 주최하고 체코한인회(회장 정인재)가 주관한 이 대회에는 유럽 17개국 49명의 한인 차세대가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우리말 우리글 바로 쓰기를 비롯해 한국 전통의 우

수성, 자랑스러운 한국·한국인, 동포 2세 및 다문화 가정의 한글과 한국 문화교육의 필요성, 유럽 한인 차세대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 등을 주제로 실력을 겨뤘다.

대회장에는 참가자와 부모, 각국 전·현지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잔치 분위기 속에 대회가 진행됐다. 수상자들에게는 총 1만 5천 유로(한화 2천250만 원)의 상금과 디지털 카메라, 시계, 디지털 앨범, 확대경 스탠드 등 푸짐한 상품이 전달됐다.

정인재 회장은 “유럽의 차세대들은 현지 학생과 현지어로 경쟁하면서 우리말도 함께 배워야 하는 고충이 있다”며 “응변대회가 한글과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과 자부심을 일깨우는 기회를 제공해 기쁘다”고 뿌듯해했다.

박종범 회장도 “이 대회가 유럽에서 자라나는 한인 꿈나무들을 위해 올바른 우리말 교육과 한국문화를 보급·확산하는 자리로 정착하고 있다”면서 “학부모의 관심이 높아져 올해에는 지난해보다 참가국과 참여자가 늘어 고무적”이라고 좋아했다.

올해 대회는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재단, 주체코 한국대사관, 대한축구협회, 공주대, 한국외대, 전남대, 한양대, 이화여대, 디지털 서울문화예술대, 조선대, 하나은행, 광주은행, 영산그룹, 재외동포신문, 월드코리아신문 등이 후원했다.

### ‘강남 스타일’ 최대 수혜자는 재외동포

“가수 사이의 ‘강남 스타일’ 덕분에 우리는 어깨 활짝 펴고 당





- 1 체코 프라하에서 11월 10일 열린 '유럽 한인 차세대 한국어 응변대회'에서 영예의 대상은 중·고등부에 출전한 독일의 김영일(16·여) 양이 차지했다. 응변대회는 유럽 17개국에서 온 49명의 참가자와 이들의 부모, 각국 전·현직 한인회장 등 200여 명이 참가해 잔치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 2 응변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행사가 끝난 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로 뛰어나와 합창하며 '말춤'을 쳤다.
- 3 49명의 한인 차세대 학생들은 응변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당히 살아요.”

한국어 응변대회에 참가한 학생들은 행사가 끝난 뒤 가수 싸이의 '강남스타일'이 흘러나오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무대로 뛰어나와 합창하며 '말춤'을 쳤다. 신나게 몸을 흔들고 땀이 송골송골 맺힌 학생들은 한목소리로 "K-팝 최고"를 외쳤다.

응변대회에서는 아예 '강남스타일 열풍'을 주제로 발표한 학생도 있었다. 슬로바키아에서 온 경진수 군은 "현지 TV와 라디오에서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오고 교실에서 아이들이 합창을 할 정도라 이제는 어딜 가든 '한국인' 입을 당당히 말한다"며 응변 도중에 말춤을 선보여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다.

K-팝 찬사는 계속 이어졌다. 초등부 최우수상을 받은 이한아 양은 "파키스탄에 살 때는 현지인들이 호감을 보여 한국 출신이라는 게 자랑스러웠는데 아일랜드로 오니 무시와 차별을 받아 움츠러들기도 했다"면서 "그러나 K-팝 덕분에 한국을 좋아하는 친구들이 많아져 이제는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한국인이라는 걸 밝히면서 살고 있다"고 힘주어 말했다.

스페인에서 출전한 가브리엘은 "어려서부터 생김새 때문에 학교에서 중국계를 비하하는 '치노'라 불리며 '미운 오리 새끼' 취급을 받았으나 K-팝 스타와 한국산 IT 제품 덕에 요즘에는 학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백조'로 거듭났다"며 "앞으로 더 많은 친구에게 한국을 알리는 전도사가 되겠다"고 자랑스러워했다.

### 응변 통해 꿈과 고민 토로

학생들은 응변을 통해 자신들의 꿈과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대상을 차지한 독일의 김영일 양은 이민자의 고단한 삶 속에

서도 자식을 위해 애쓰는 부모에 대한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전해 청중의 눈시울을 적셨다.

폴란드에서 온 권혜린 양은 "현지 말과 영어도 배워야 하고 토요일에는 한글학교도 다녀야 하니 너무 힘들었지만 부모님께서 정체성을 심어주려고 한국에서 2년을 지내게 한 덕분에 한국을 친숙하게 느끼게 됐다"며 "한국을 잘 모르는 동포 친구들은 평소에 폴란드어나 영어를 쓰고 있어 안타깝다"고 걱정했다.

다문화부 최우수상에 뽑힌 영국의 힝스 유안 군은 "토요일마다 한글학교라는 '작은 한국'에 속해 있는 게 날 포근하게 만든다"면서 "영국인 아빠와 한국인 엄마 덕분에 세상을 보는 두 개의 앵글을 갖게 돼 감사하다"고 뿌듯해했다.

이날 전·현직 한인회장들은 얼굴빛과 생김새가 달라 현지 친구들로부터 놀림을 받은 이야기에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타까워하다가도 스스로 잘 견뎌내고 씩씩하게 사는 유럽 한인 차세대들을 보며 힘찬 박수로 격려했다.

정인재 체코 한인회장은 "'강남스타일' 노래의 최대 수혜자" 사이 자신보다 외국에 사는 한인 차세대들"이라며 "대회가 열린 호텔 직원들도 한국인임을 알아보고는 인사처럼 말춤을 추는 것을 보면 어깨가 절로 으쓱해진다"고 털어놓았다.

응변대회를 주관한 박종범 유럽한인총연합회장은 "한인 차세대들이 자신의 고민과 꿈을 맘껏 밝히는 이번 대회를 통해 오히려 1세대들이 배우는 시간이 됐다"면서 "유럽 각국에서 온 학생들이 선의의 경쟁을 통해 친구를 사귀는 잔치로 응변대회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장**

프라하 연합뉴스 강성철 기자



1 다솜 한국학교는 다양한 수업을 진행하면서 학생들이 학교 생활에 재미를 붙이도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16일에는 미 동중부 협의회가 주최한 동요대회에 참가했다.  
2 특별활동으로 샌드위치 만들기예 도전하고 있는 학생들.

# 미국 '다솜 한국학교' 다양한 인재 키운다

**우** 리말을 배우고 익혀 차세대의 정체성을 키우고 한국계 미국인으로 올바르게 성장하기 위해 한글학교야말로 한인사회의 가장 소중한 자산이다.

다솜 한국학교는 미국 동부 뉴욕 교육원 산하 동중부 협의회 소속으로 필라델피아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2010년 가을학기부터 다솜으로 명칭을 정했으며, 현재 15명의 교사들과 70여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유치반, 초등반, 중고등반 및 성인반으로 나눠서 배우고 있다.

남궁령 교장은 “재외 동포 2세를 위해 한글을 가르치는 것 이외에도 문화, 역사 및 다양한 예체능 특별 과목을 교육의 주 프로그램으로 확장 포함하면서 폭넓게 한국학교라고 명칭을 정했다”고 밝혔다.

남 교장은 “어린아이에게 ‘넌 어느 나라 사람이니?’ 라고 물어보면 ‘나는 미국인’ 이라고 무심코 느끼고 대답하는 경우가 흔히 있다”며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는 아이에게 단순히 우리의 뿌리는 한국인이므로 한국말을 배워야 한다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설피게 이해하기 어려운 변명의 말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다솜 한국학교는 어떻게 하면 한국인으로서 미국에서 자라는 특성의 정체성을 발견하고 만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오히려 역동적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의 개개인의 특성을 발견하도록 노력하여 이를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여러 특성에 맞는 맞춤 교육의 접근으로 미국 교육의 특성처럼 강제적 주입식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필요한 것에 오히려 학생들이 다가오고 그렇게 되는 학습의 이치를 깨닫게 하는 형태의 교육을 핵심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

다솜 한국학교는 미국에서 자라는 자녀들에게 한국계 미국인으로서 우리말뿐만 아니라 한국문화와 미국문화에 접하여 살면서 겪는 문화 차이를 바르게 알게 하고, 한국문화 및 다양한 특별 과목들을 통해 꿈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생들에게 한국적 문화와 행사 위주의 한국을 빛낸 롤 모델 소개하기, 문화와 역사 보여주기, 같은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글짓기, 동요노래부르기, 붓글씨, 전통음악배우기 등으로 특별활동과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학교의 주 교육내용은 한국어, 한국 역사, 한국 문화 및 매 학기마다 가장 적합한 특별활동을 선택해서 교양과 선택으로 구분하여 수업을 하고 있다.

3~5세 학생들은 한글의 교육과 동시에 영역별로 언어생활, 사회생활, 건강생활, 표현생활, 탐구생활의 다섯 가지 구분을 가정 학교에서로부터 첫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첫 번째 학교생활의 적응과 동시에 올바른 자아확립에 중점을 두고 있다.

다솜 한국학교에서는 다른 학생과 비교 평가가 아니라 자신과의 비교를 통한 상을 10개 부문에 나눠서 주고 있다. 개인 10가지 부문 평가 중에서 가장 뛰어난 분야로 ‘문법왕 상, 쓰기왕 상, 읽기왕 상, 말하기왕 상, 듣기왕 상, 숙제왕 상, 미술왕 상, 탐구왕 상, 집중왕 상, 좋은친구 상’ 으로 다양하게 인정을 해주고 있다.

남 교장은 “학교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어린 2세 학생들, 혼혈, 입양, 어른들 및 외국인까지도 학생으로 구성하겠다”며 포부를 밝혔다. **장**



# 미국 선거에서 한국계 정치인 다수 당선

## 어바인 시장 최석호 등 “한인 위상 강화 힘쓰겠다”

11월 6일 미국 대통령 선거와 함께 치러진 지방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티의 어바인 시장에 한인 최석호(68·미국 이름 스티븐 최) 씨가 당선됐다.

현재 시의원인 최 씨가 시장에 당선되면서 어바인 시장은 현재 강석희 씨에 이어 한인이 연이어 맡게 됐다. 2008년부터 연임하며 4년 동안 재직해 강 시장에 이어 최 씨가 취임하면 6년 연속 어바인 시는 한인이 이끌게 된다.

1993년부터 어바인에서 학원 사업을 벌이며 뿌리를 내린 최 당선자는 6년 동안 시 교육위원을 지낸 데 이어 무려 8년 동안 시의원을 맡아 지명도가 높은 인물이다.

특히 ‘교육 도’ 어바인에서 교육 위원으로 일하면서 교육자로서 입지를 다졌다. 어바인 지역 아동 학습 능력 향상과 공공 도서관 확충과 시설 개선, 환경 보전 운동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강석희 시장과 함께 캘리포니아에서 대표적인 한인 지역 정치인의 반열에 올랐다.

최 당선자는 특히 “전폭적으로 밀어준 한인들의 덕을 많이 봤다”면서 “한인들의 입지를 향상시키는데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당 소속으로 어바인을 포함한 제45선거구에서 연방 하원의원에 도전장을 낸 강석희 어바인 시장은 현직 하원의원인 존 캠펠 후보에 져 낙선했다.

강 시장은 “현역의 벽이 이렇게 높을 줄 몰랐다”면서 “성원해준 동포들에게 송구스럽지만 최선을 다했기에 후회는 없다”고 말했다.

주 의회 선거에선 B.J. 박(38·한국명 박병진·공화) 조지아주 하원의원과 신디 류(55·한국명 김신희·민주) 워싱턴주 하원의원이 재선에 성공했다.

연방검사 출신인 이민 1.5세대 박 의원은 조지아주 하원 108지구 선거에 단독 출마해 개표와 동시에 당선이 확정됐다.

신디 류 의원도 워싱턴주 32지구 주 하원의원 선거에 나서 70% 이상 득표해 상대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이겼다.

뉴욕주 40지구 주 하원의원에 출마한 론 김(33·한국명 김태석·민주) 전 뉴욕주지사 퀸지역 담당관도 69% 득표해 당선됐다.

펜실베이니아주 103지구 하원의원 도전에 나선 CBS방송 앵커 출신의 패티 김(37·민주) 해리스버그 시의원은 단독 출마해 당선됐다.

그러나 뉴욕주 주 상원의원에 도전했던 J.D. 김(38·한국명 김정동·공화) 변호사는 당선에 실패했다.

오렌지카운티 라팔마 시의원에 출마한 피터 김은 후보 7명 가운데 가장 많은 표를 얻어 무난하게 당선됐다. 인구 1만5천여 명의 라팔마 시에는 중국, 필리핀, 베트남, 한국 등 아시아계 주민이 30%가 넘는다.

피터 김 당선자는 한인인 미셸 박 스틸 캘리포니아주 조세형평위원회 부위원장의 보좌관을 맡으면서 일찌감치 아시아계 표밭을 공략해 결실을 봤다. **▶**



최석호  
어바인 시장



박병진  
조지아주 하원의원



신디 류  
워싱턴주 하원의원



론 김  
뉴욕주 하원의원



패티 김  
해리스버그 시의원



피터 김  
라팔마 시의원

## 독일 · 멕시코 한인 행사 격려 및 현황 파악 김경근 이사장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과 재독한인 클릭아우프회 회원들이 11월 11일 파독광부기념회관 광산박물관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경근 재외동포재단 이사장은 11월 10일부터 15일까지 독일, 멕시코를 방문했다. 김 이사장은 10일 독일 코헨(Cochem) 유스호스텔에서 개최되는 재독한글학교 교사연수회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는 한편, 동 지역 한글학교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한글학교 운영 현황 등을 파악했다.

이어 11일에는 에센(Essen)시 파독광부 기념회관을 방문하고, 동포단체대표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동포사회 현안과 기념회관 운영 현황 등을 살펴보았다.

재독한인클릭아우프회 고창원 회장의 안내로 회관 구석구석을 돌아본 김 이사장은 재독동포역사자료실과 광산박물관에 깊은 관심을 표명하였으며, 현재의 모습을 갖추기까지 수고를 아끼지 않은 관계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현장에서 큰 감명을 받았음을 전했다

김 이사장은 13일 멕시코시티에 위치한 한인종합회관 개관식에 참석하고, 동포밀집지역을 방문한 후 귀국했다.

멕시코 한글학교 및 한인회관은 2010년 6월 동 지역 한인 및 지·상사가 성금 모금 등을 통해 구입했으나, 급증하는 학생 수로 인해 교실 부족 등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재단의 건립 지원금과 지·상사의 성금 등으로 동 회관에 대한 증축 공사가 시행돼 지난 10월 준공됐으며 이번 공사로 한글학교, 한인회가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한인종합회관'으로 거듭나게 됐다.

## 스터디코리아 '스마트앱어워드 2012' 우수상

재외동포재단에서(이사장 김경근) 운영하고 있는 재외동포 한국어교육 사이트인 '스터디코리아(<http://study.korean.net>) <http://bit.ly/V9TCAM> 스마트앱이 20일 (사)한국인터넷전문가 협회가 주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 등이 후원하는 '스마트앱어워드 2012' 교육문화 부문(어학교육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재단은 재외동포들이 스마트기기를 이용해 자유롭게 한국어를 학습할 수 있도록 동 스마트앱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문법·단어학습은 물론 동요를 통한 학습도 가능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스마트앱어워드는 한 해 동안 새로 개발되거나 업데이트된 모바일 앱들을 대상으로 인터넷전문가 2천명으로 구성된 평가위원단이 심사한 결과에 따라 디자인, UI/UX, 기술, 콘텐츠, 서비스 측면에서 가장 혁신적이고 우수한 성과를 이룬 앱들을 선정해 시상하는 국내 최대 규모와 권위의 상이다.



김경근 이사장은 "스터디코리아 스마트앱이 스마트앱어워드에서 우수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재외동포들에게 다양한 한국어 학습 콘텐츠를 앱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한편, 스마트앱어워드 시상식은 12월 13일 오후 서울 양재 엘타워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스터디코리아는 2010년 12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청소년권장사이트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한 바 있다.



## 베트남 영비즈 최분도 사장 '착한 기업상' 수상



11월 6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 지식경제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 공동 주최로 열린 기업의 사회적책임상 수상식에서 최분도 사장의 PTV가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한국 지식경제부와 베트남 기획투자부(MPI)가 공동주최 하고 코트라가 주관하는 사회적 책임 우수기업 시상식이 베트남 하노이의 랜드마크타워에서 11월 6일에 열렸는데 영비즈니스 리더포럼의 베트남 지회를 맡고 있는 최분도 사장이 우수 중소기업으로 선정돼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시상식은 베트남 투자진출기업들의 사회 책임경영 활동확산을 통한 기업이미지 제고를 지원하고, 한국과 베트남 간의 우호 협력관계 확대 취지에서 기획되었다.

최 사장이 받은 중소기업 부문 베트남 기획투자부 장관 상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착한 기업 상' 이어서 수상의 의미를 더 빛나게 했다. 특히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부문에서 수상한 기업들이 모두 베트남에 진출한 한국 기업인데 최 사장의 PTV 만이 유일한 현지기업이라서 더 주목을 받았다.

베트남 호찌민에서 종합물류운송회사인 PTV를 경영하는 최분도(46) 사장은 수상 소감에서 "베트남인들에게 가장 사랑받는 한국 기업을 만드는 것이 꿈"이라고 밝혔다.

PTV는 베트남 내 수출업자가 물건을 만들어 전 세계 시장으로 내보낼 때 통관과 육·해·공 운송 업무를 대행하고 있다. 또 수입 물품도 80개국 600여 개의 파트너 물류회사를 통해 신속하게 처리해 주고 있다.

연간 5만여 건의 운송 대행을 하면서 1천3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베트남 물류업계의 큰 손이다.

최 사장은 1993년 동국대 인도철학과를 졸업하고 무역회사의 해외 영업 담당으로 입사하면서 베트남과 인연을 맺었다. 베트남에 소방설비 자재를 판매하는 업무를 맡아 베트남 출장이 잦았던 것.

베트남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본 그는 1995년 회사를 그만두고 개인 무역 회사를 차렸다. 베트남 국영석유회사에 소방 설비를 납품하면서 호황을 맞았지만 얼마되지 않아 몰아닥친 외환 위기 파고를 비켜갈 수는 없었다.

고전을 거듭하던 그는 2002년 아예 베트남으로 옮겨갔다. 그러나 동포에게 사기를 당하고 중국의 저가 제품에 밀리면서 시련에 봉착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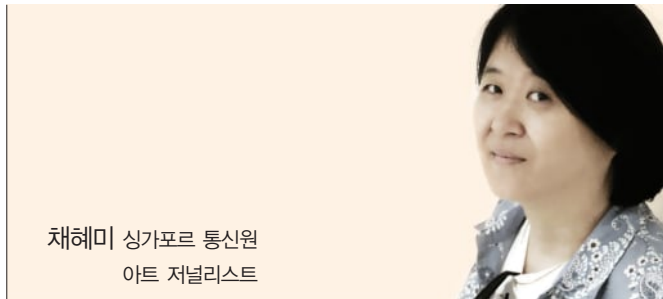
최 사장은 "베트남 진출 2년 만인 2004년 한국으로 돌아갈 것인지는 아니면 새로운 도전을 할 것인지를 놓고 고민하던 참에 한국 기업의 베트남 투자가 늘기 시작했다"면서 "물류사업을 하면 승산이 있겠다는 생각에 새로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회상했다.

당시 한국계 중소 물류회사들이 현지에서 영업하고 있었지만 한국에서와 같은 완벽한 물류·통관 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 않았다.

최 사장은 고객들이 재차 자신을 다시 찾지 않을 수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기반을 넓혀 나갔다. 그 결과 한국 기업의 베트남 진출 초기인 2007년부터는 한국의 대기업과 80여 개의 현지 공장 이전을 위한 화물 운송을 처리하며 베트남 최고의 물류업체로 성장했다.

호찌민시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수상하기도 한 최 사장은 "베트남에서 번 돈을 베트남 사람들에게 쓰고자 한다. 단순한 금전적인 도움이 아닌 함께 나누는 사회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코리아 페스티벌 싱가포르 2012’ 클래식 등 한류의 확장 보여줬다



**다**양한 한국의 문화를 싱가포르에 알리기 위해 싱가포르 주재 한국대사관(오준 대사)의 주최로 매년 열리는 ‘코리아 페스티벌 싱가포르’가 어느덧 5년째 접어들고 있다.

그동안 케이 팝(K-Pop), 한국 영화제, 한국음식 만들기 등의 대중문화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행사들과 달리 올해는 케이 클래식(K-Classic) 공연을 위해서 한국예술종합학교(KNUA)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하였다.

싱가포르 국립대학(NUS)의 ‘용수토 컨서바토리 오브 뮤직’의 콘서트홀에서 11월 24일에 열린 이번 공연은 두 달여 동안 진행된 코리아 페스티벌의 마지막 행사였다. 최근 국제 콩쿠르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젊은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이 재능과 기량을 아낌없이 발휘한 무대로 싱가포르에 거주하는 세계 각국의 클래식 애호가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연주회였다.

오준대사의 환영사와 연이어 주빈으로 초청된 NUS 총장(Dr. Tan Chorh Chuan)의 축사로 시작된 공연은 한예중 심포니 오케스트라(KNUA K-Classic)가 롯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을 연주하며, 양국 간의 젊은이들이 문화예술교류와 기반을 다지는 기회로서의 의미 있는 팡파르가 시작됐다.

500여 명의 청중과 함께한 이번 연주회는 정치용 교수의 지휘와 초등학교 6학년에게 재학 중인 음악 영재 이수빈 양의 사라사테 ‘카르멘 판타지’ 바이올린 협연 등으로 청중들에게 진한 감동을 주었다. 뿐만 아니라 국제무대에서 인정받은 테너 김범준 군과 소프라노 고승희 양의 아리아는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어 관객들

의 큰 갈채를 받아 앙코르로 이어졌다.

한국의 열이 담긴 이수빈 선생의 ‘내 마음의 강물’과 ‘고향의 노래’는 한국의 정서와 감성이 녹아있는 멜로디로 한국 가곡의 진수를 보여주는 계기가 되기에 충분했다. 최승환곡의 ‘아리랑 판타지’ 연주는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곡으로 선정된 곡으로 싱가포르에서도 널리 알려진 곡이다. 아직 한국의 클래식 음악을 접해볼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싱가포르에 한국의 클래식(K-Classic)을 맛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행사였음을 알 수 있다.

## 21세기 경쟁력은 ‘문화예술’

21세기의 국가 경쟁력은 단연 문화예술에 있음은 미래학자들에 의해서 이미 예견되었다. 그러한 의미에서 한국에 문화예술을 주도하는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대학교가 정부 산하에 있다는 것은 한국의 자량이 아닐 수 없다.

그렇다면 세계적인 콩쿠르에 나가기만 하면 상을 휩쓰는 한국 클래식 음악의 급격한 성장 비결과 한예중과는 어떤 연관이 있는 것일까? 개교 20여년 만에 세계무대에서 인정받는 수많은 음악가들을 배출한 한예중은 과연 어떤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올해 벨기에 공영방송에서 제작된 티에리 로로 감독의 한국 클래식의 수수께끼(The Korean Musical Mystery 2012)라는 다큐멘터리는 제 8회 제천국제 영화제에서 국제 경쟁부분 초청작품으로 한예중의 예술 교육에 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룬 영상작품이다.

세계 클래식 음악계가 모두 궁금해 하는 한국 음악가들의 탁월함의 비결을 파헤치고 그것이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를 탐구함으로써, 한국 클래식 음악가들의 위상은 물론 음악가들의 국제 경쟁력이 뛰어난 한국의 클래식 연주자들의 실력이 세계적임을 인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우리 학교는 수능을 통해서 학생들을 선발하지 않습니다. 오직 실기시험에서 우수한 학생들만 입학하게 되지요. 중요한 것은 교육시스템인데 1년에 50회 이상의 연주회를 하고 있어요. 실전





‘코리아 페스티벌 싱가포르 2012’ 행사의 일환으로 11월 24일에 열린 케이 클래식 공연은 한국예술종합학교(KNUA) 심포니 오케스트라를 초청해 릿시니의 ‘윌리엄 텔’ 서곡, 사라사테의 ‘카르멘 심포니’ 등의 레퍼토리로 수준 높은 한국 클래식음악 연주를 선보였다.



코리아 페스티벌 기간 중 10월 9일에는 태권도를 소재로 한 비보이 팀의 ‘태권도 탈’ 공연도 열렸다.



코리아페스티벌에 참가한 어린이 전통무용단이 부채춤을 선보이고 있다.

을 통해서 학생들의 실력이 빠른 속도로 향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교수진들의 열성적인 지도와 개별적인 코칭은 학생들의 능력을 계발하는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있어요.”

음악원의 박광서 원장은 세계인이 궁금해 하는 한예종의 성장 비결을 이렇게 설명했다. “한예종의 시스템이 다른 대학교들의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고 있어요. 해외 유학을 가지 않고도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지요. 뿐만 아니라 한예종의 영재교육원에서는 재능 있는 꿈나무들을 지도하여 세계적인 음악가로 키우고 있습니다.”

### 비보이-전통무용 공연도 선보여

이제 한류의 강한 흐름을 더 이상 어느 한두 가지 장르에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된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문화의 다양성을 분야별로 균형 있게 계발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클래식은 오랜 세월을 걸친 교육은 물론 숙성기간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동안 쌓아 온 것들을 보다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으며, 특히

교육 분야에 접목하면 보다 다양한 일들을 해낼 수 있다.

한국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재능들 그것들을 꽃피우고 열매를 맺어 이웃과 나누고 세계와 함께 나누는 일들을 해야 한다. 아시아의 많은 나라의 롤 모델이 되고 있는 한국은 단지 급격한 경제성장으로만 다른 나라의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가진 문화유산들과 예술이 세계에 알려지면서 한국을 새롭게 보게 되고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한국의 정신이 그들에게 있어서 벤치마킹의 대상으로 느껴지고 있기 때문이다.

클래식음악의 진수를 맛보게 한 한예종 심포니 오케스트라의 싱가포르 방문이 주는 의미는, 아시아에서 최고의 문화강국으로써 한국의 위상과 그 능력을 보여주는 계기이자 문화예술과 경제성장의 동반성장의 문을 여는 시점이 되었다는 것을 보다 명확하게 보여준 행사였다.

이러한 행사를 계기로 글로벌 시대에 국제무대에서 활동할 차세대 클래식 음악인들이 아시아에 진출하는 계기가 마련되어 그들과 함께 미래를 꿈꾸는 글로벌 예술인들로 성장하여 동반성장하는 하계 되기를 기대해본다. **장**

# 열악한 환경 헤치며 성장해 온 ‘멕시코 한인’



1905년 5월 12일 멕시코 중서부 태평양 연안 살리나 크루스 항에 도착한 한인 1천33명은 곧바로 남부 유카탄 반도 메리다로 이동해 에네켄 농장에서 한 많은 이민 생활을 시작했다. 107년의 세월이 흐른 현재 멕시코에는 3만여 명이 달하는 후손들이 있다.

첫 이민자들은 4년간 계약노동을 했고 자유로워졌지만 한일합방 소식이 전해지면서 돌아갈 희망을 잃게 됐다. 이후 유랑생활을 하면서 멕시코 전역으로 흩어졌다. 현재 후손들은 메리다에 약 5천 명이 살고 이밖에 멕시코시티, 티후아나, 베라크루스, 오아하카 등도 후손들이 많은 지역으로 꼽힌다.



이민 1세대들은 돌아갈 수도 없는 조국을 잃는 절망적 상황에서도 강인한 민족혼을 발휘, 한국인으로서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는 곳마다 한글학교를 세워 2세대들에게 모국어와 민족의식을 가르쳤다. 독립성금은 물론이고 한국전쟁 이후 조국의 난민을 돕기 위해 구제금까지 보낸 그들이었다. 당시 이민자들의 독립운동에는 메리다를 방문한 도산 안창호 선생이 큰 역할을 했다고 전해진다.

후손들 가운데 한국말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지만 한국 음식문화는 그대로 간직하고 있다. 지금도 많은 후손들이 고추장, 된장, 콩나물, 만두, 미역국 등을 알고 있다. 밥 또한 멕시코 식이 아닌 한국식으로 지어 먹을 줄 안다.



서울올림픽은 후예들에게 혈연적 자긍심을 심어준 계기가 됐다. 한인 후손들은 오랜 세대가 흘러 한국인 피의 순수성이 얽어졌어도 마음가짐이 한국인 후예라고 하면 후손들로 봐야 한다.

멕시코 한인 사회는 이민 107년을 맞으면서 주류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고 있다. 2004년 멕시코 이민 100주년을 맞으면서 한국 정부도 적극 지원에 나섰다. 재외동포재단은 매년 후손들을 모국으로 초청해 직업연수를 해오다 올해부터는 정체성을 심어주는 모국체험 연수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 멕시코의 많은 후예들은 멕시코 주류사회에 기여하고 있다. 의사, 변호사, 교수, 기자, 고위관리, 회계사, 목사, 사업가 등 각종 전문분야에 진출해 활약 중이다.

메리다 지역 한인후손 중 한인 3세 올리세스 박(71) 씨는 자동차 매연검사소를 운영하는 지역 유지다. 다비드 김 멕시코시티 후손회장은 공인회계사로 현재 멕시코 진출 한국 기업들의 회계 업무를 적극 돕고 있다.

이민 4세로 동양계 이민 여성이라는 약점을 극복하고 키타나 로 주(州) 대법원장으로 재직하고 있는 리스벳 로이 송(57) 판사와 지방의회 의원으로 정계에 첫 진출한 제도혁명당(PRI) 소속 이민 4세대 노라 유 의원은 한인 후손들에게 자부심이 되고 있다. **[장]**

1 김항식 국무총리가 12월 2일 멕시코 수도 멕시코시티 한 호텔에서 한인 후손들과 오찬 자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김 총리는 이날 "멕시코 내 다양한 분야에서 큰 활약을 하며 우수성을 발휘하는 한인 후손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2 1905년 5월 12일 멕시코 도착 직후 유카탄 에네켄 농장에서 일하던 한인 이민 1세대들의 기념촬영 사진

3 1905년 1천33명으로 시작된 멕시코 한인 사회는 현재 3만여 명으로 늘어났다. 멕시코 프로그레소 항구 인근 한인 후손 루이스 올센 씨의 집에서 열린 한국체험행사서 한인 후손 300여 명이 기념촬영 하고 있다.



# 하늘을 나는 나무

김성만(중국) 2012 재외동포문학상 시부문 우수상

북경 외곽 장자커우  
나무 한 그루  
하늘을 난다  
운동장가에서 소학교를 지키며  
한 마리 큰 새가 되어  
비상한다

아이가 나무 옆에  
서기만 하면 새가 된다  
이 새는 북경에도 가고  
상해도 간다  
이제 파리 런던 뉴욕을 난다  
무지개 찾아

나무는 다 말라버린 땅에서  
줄넘기를 한다  
아이들보다 키가 커야한다고  
그래야 더 높이 날 수 있다고  
언제든 훌쩍 날 수 있는데도  
비상하는 연습을 한다  
땅에 뿌리 깊이 박고

# 눈도 마음도 풍요로워지는 섬 남해

**석**양빛에 물든 바닷물 위로 작은 어선이 지난다. 죽방렴에 잡힌 멸치를 건으러 가는 배다. 웬지 고즈넉하면서도 그리운 정경이다. 남해는 이처럼 사람마저도 풍경으로 만드는 섬이다. 헛헛한 마음이 사그라지는 곳이다.

남해는 79개의 섬으로 이뤄져 있으나 국내에서 네 번째로 큰 남해도와 창선도가 주를 이룬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왼쪽으로는 전남 여수, 오른쪽으로는 통영과 고성이 자리한다. 하동에서 연결되는 남해대교나 사천에서 이어지는 삼천포대교를 이용해 들어갈 수 있다. 서울에서 출발하면 자동차로 4시간 30분 정도 소요된다.

여수에서 남해를 거쳐 통영까지 이어지는 한려수도(한려수도의 굴곡이 심하고 복잡하다. 남해 역시 바다와 산이 맞닿아 있을 만큼 표고차가 크고, 만(灣)이 세 개나 있는 리아스식 해안을 자랑한다. 위에서 굽어보면 물속에 조용히 잠들어 있다가 승천하는 용을 상상하게 되는데, 그 위세가 자못 웅장하다. 남해에서는 어느 산에 올라도 빼어난 경치를 조망할 수 있다.

## 가천 다랭이마을, 인간의 공력이 더해진 절경

남해는 국내의 섬 가운데 산이 가장 많고, 하천은 짧은 고장이다. 먹고살려면 비탈진 땅을 평평하게 닦아 작물을 심어야 했다. 선인들의 땀과 노력이 뻗 남해의 다랑논 가운데 경관이 가장 아름다운 곳이 가천 다랭이마을이다.

보기에는 좋으나 살기에는 힘든 지역이 있다. 입구에 서면 바다를 배경으로 100개가 넘는 다랑논이 펼쳐져 있어 감탄사가 터지지만, 경사가 심해 걸을 때마다 숨이 차오르는 가천 다랭이마을이 그러하다. 쌀과 마늘 농사로 생계를 잇고 있는 이곳 주민들은 대

다수가 토박이다. 그래서 인정이 넘치고, 소와 쟁기가 필수인 과거의 농경 방식이 아직까지도 유지되고 있다.

마을의 주인공인 다랑논은 면적이 제각각이다. 가장 작은 밭은 1m<sup>2</sup>에 불과하고, 큰 밭이라고 해도 100m<sup>2</sup>를 거의 넘지 않는다. 형태도 길쭉한 막대기, 부메랑, 찌그리진 사각형 등 저마다 다르다. 마구잡이로 오려 놓은 퍼즐 조각을 연상시킨다.

가천 다랭이마을에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논인 샷갓배미 찾기, 농사일 돕기, 연날리기, 쥐불놀이, 짚공예품 만들기 등의 체험 활동을 할 수 있지만, 골목 구석구석을 탐험하는 것만으로도 흥미롭다. 지붕에는 알록달록한 꽃이나 유자, 마늘이 큼지막하게 그려져 있고, 담벼락은 마을의 일상을 묘사한 각종 벽화로 장식돼 있다. 허름하지만 풍광이 일품인 식당에서는 남해 특산물인 유자의 향기가 나는 막걸리와 해물이 넉넉하게 들어간 파전을 먹어볼 수 있다.

마을을 둘러보고 바닷가로 내려가면 짝을 이루고 있는 한 쌍의 바위가 있다. 기도를 하면 옥동자를 얻는다는 전설이 내려오는 ‘암수바위’다.

가천 다랭이마을의 독특한 풍속은 풍작을 기원하며 쌓아 올린 돌무더기인 밥무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 남녘에서 만나는 독일과 미국

기후가 온화한 남해에는 질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명당자리에 이국적이고 화사한 집들이 옹기종기 들어서 있다. 독일 소도시의 예쁜 거리와 미국 남부의 한적한 시골을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한 ‘독일마을’과 ‘미국마을’이다.

새하얀 외벽과 다홍빛 기와지붕의 이층집, 아담한 마당에 피어

- 1 국가지정문화재 명승 제15호로 지정된 경남 남해군 남면 가천 다랭이마을. 다랭이마을의 길은 구불구불하고 환경은 청정하다. 개울에는 참게가 서식하고, 날이 추워지면 가마우지가 해안가로 찾아와 겨울을 난다. 비록 해풍이 거세지만, 그 덕분에 병충해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 2 경남 남해군이 국제연합 식량농업기구(FAO) 세계 중요농업유산 등재를 추진하는 지역의 대표적 원시어법(漁法) 죽방렴(竹防簾) 모습.
- 3 경남 남해군이 1960년대 외화를 벌기 위해 독일로 갔던 광부와 간호사의 고국 정착을 돕고 관광상품화하기 위해 조성한 독일마을. 바다와 마주하고 있는 독일마을과 미국마을도 입지가 뛰어나다. 남해군은 2014년까지 ‘일본마을’을 만들 예정이다.
- 4 경남 통영시 한려수도 조망 케이블카 상부역사에서 미륵산으로 오르면 거제대교를 비롯해 한산도, 추봉도, 장사도, 매물도 등 한려해상 국립공원의 섬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진다.
- 5 경상남도 남해군 이동면과 상주면 경계에 있는 금산(해발 681m)에서 이른 아침에 제일 높은 상봉인 망대에 오른 관광객이 일출을 바라보며 각자의 소원을 빌고 있다. 금산의 일출은 우리나라 어디에서도 맛볼 수 없는 장엄함과 신비함을 갖춘 절경의 극치이다.



2



있는 꽃과 곳곳에 설치된 작은 우체통이 영락없는 독일이다.

완만한 오르막을 따라 독일식 가옥 30채 정도가 모여 있는 독일 마을은 교포들의 정착지로 마련됐다. 한반도의 자연과 독일 문화가 조화를 이루고 있는 마을에서는 1960년대 돈을 벌기 위해 이역만리로 건너가 광부와 간호사로 일했던 사람들이 여생을 보내고 있다. 재미있게도 집마다 괴테, 베토벤, 구텐베르크, 하이델베르크, 함부르크 같은 독일 인물이나 도시의 명칭이 붙어 있다.

독일마을에는 민박으로 운영되는 집이 적지 않다. 전망 좋은 방에서 하룻밤 묵으며 숨씨 좋은 주인이 만든 독일식 빵과 소시지뿐만 아니라 독일 맥주와 와인도 맛볼 수 있어 인기가 높다. 또 뮌헨

에서 옥토버페스트가 절정으로 치닫는 10월 초순에 마을을 방문하면 맥주 빨리 마시기와 무료 시음회, 민속 공연 등이 열리는 '맥주축제'에 참가할 수도 있다.

지난해 완공된 미국마을 역시 미국에 거주하던 교포들의 거처로 조성됐다. 뉴욕의 상징물인 '자유의 여신상' 축소 모형 뒤로 22채가 건축됐는데, 독일마을보다는 뚜렷한 특색이 없는 편이다. 그래도 여기 저기 살펴다 보면 미국 각지에서 가져온 간판이나 깔끔하게 정돈된 넓은 정원이 눈에 띈다. 이곳에서도 주택 가운데 상당수는 여행자를 위한 숙소나 카페로 쓰이고 있다. 한적하고 평화로운 분위기 속에서 느긋하게 산책할 수 있는 장소다. **장**



1



3



4



5

# 재외동포 코리아넷에서 하나가 되자!

재외동포재단은 전세계 한인 단체를 하나로 연결, 온라인 한민족 네트워크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720만 재외동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참여 대상** : 전 세계 한인단체 홈페이지  
 '신규로 재단 홈페이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한인단체' 부문 /  
 '재단 웹호스팅을 이용하는 한인단체' 부문
- **이벤트 참여기간** : 2012년 11월 19일 ~ 2012년 12월 16일
- **참여 방법** : 재단 홈페이지에 서비스를 신청해 홈페이지 개설 후 운영을 하면 자동으로 홈페이지 신청이 완료 됩니다. 기존에 코리아넷 홈페이지를 이용 중인 한인단체는 자동 참여됩니다.
- **이벤트 경품** : 1등(50만원 상당 상품)부터 5등(5만원 상당 상품)에 이르기 까지 28개 한인단체 홈페이지를 선정해 수여함.
- **심사 방법** : 신규 홈페이지 부문은 게시물수, 누적 방문수, 조회수 등을 종합 재단 웹호스팅 이용 부문은 누적 방문수 적용



## 독자후기 \_ 은상진 호주

지난 10월 한국에서 열린 '세계한상대회'에 참석했다. 한식 및 일식과 태국 식당을 운영하는 나로서는 한상 대회에서 현지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음식 아이템을 찾는 등 사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한상들과의 교류가 무척 소중한하다.

연간 수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리딩 CEO의 성공 사례를 듣다보면 나태해진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든다. 그리고 좀 더 원대한 포부를 가지겠다고 다짐 하곤 한다.

기업전시회를 둘러보다 보면 안타까운 것도 많이 눈에 띈다. 제품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해외로 진출하려면 좀 더 글로벌한 감각이 필요한 점이다. 현대는 마케팅 시대라서

품질만으로는 시장을 뚫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국은 품질 면에서는 이제 선진국의 대기업과 큰 차이를 느끼지 못할 정도다. 어떤 제품은 한국산이 훨씬 우수하다. 마케팅에 대한 감각이 좀 더 키운다면 해외 시장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다.

해외에서 살다보니 비즈니스가 글로벌한 감각이 생긴다.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부터 전 세계를 상대로 구상을 하는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구멍가게를 벗어나기 어렵다. 세계한상대회가 국내 중소기업과 해외 한상이 서로 협력해서 발전하기 위해서는 비즈니스 교류가 1년에 1회뿐인 대회에 그치지 말고 상설화 되었으면 좋겠다.





## 한국의 아름다운 섬, **독도**



### 대한민국 정부의 독도에 대한 기본입장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교섭에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게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동쪽 끝에 위치한 아름다운 섬 독도는 동도, 서도와 89개의 부속도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연기념물 제 336호인 독도는 60여종의 식물, 129종의 곤충, 160여종의 조류와 다양한 해양생물의 서식지이며, 동해안에 날아드는 철새들의 중간 기착지이기도 합니다.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독도는 인간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진 우리의 소중한 유산입니다

720만 재외동포가 하나되는 그날까지

**재외동포재단** 이 함께 하겠습니다.



세계 어디에 살더라도 당신은 자랑스런 한인입니다.

지구촌 170여 개국에 거주하고 있는 720만 재외동포들은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재외동포들이 민족정체성을 유지하면서 거주국에서 모범적 구성원으로 정착하고 나아가 모국과의 상생협력을 통해 공동 번영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재외동포재단은 전 세계 한인들이 온라인을 통해 하나가 되는 글로벌코리안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